

BNK 경제인사이드

BNK 금융경영연구소

NO. 2015-11

(2015년 11월)

2016년 동남권 경제전망

백충기 수석연구위원 (cgbaek@bnkfg.com)

김민준 책임연구원 (kmj9612@bnkfg.com)

2016년 세계경제는 금년보다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경제성장률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금년의 저조한 성장세를 감안하면 경제활동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권 경제성장률은 금년 1.5%(추정치)에서 2016년 2.7%로 상승할 전망이다. 다만 중국경제와의 높은 연관성을 고려할 때 전국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경우 2016년 4.5% 성장하여 금년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울산 및 경남의 성장률은 각각 2.0% 및 1.9%로 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대 주력업종인 조선업은 과거 2~3년치 수주량을 고려할 때 생산이 증가세로 반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수주전망은 밝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은 금년보다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며 건설업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전망

2016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금년보다 상승할 전망이다. 미국경제의 경우 금년 2.5% 내외에서 내년에는 2%대 후반으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로 및 일본경제는 양적완화 정책, 저유가 지속 등에 힘입어 각각 금년보다 다소 높은 1% 후반대와 1%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신흥시장국 경제의 경우 중국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성장세 확대, 브라질·러시아의 마이너스 성장률 축소 등으로 내년에는 성장률이 반등할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저유가 및 구조개혁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기대에도 불구하고 주택투자 증가세 둔화, 과잉 신용공급 조정 등으로 금년보다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국가별	2012	2013	2014	2015		2016	
				IMF (2015.10)	OECD (2015.11)	IMF (2015.10)	OECD (2015.11)
세계전체	3.4	3.3	3.4	3.1	2.9	3.6	3.3
선진국	1.2	1.1	1.8	2.0	—	2.2	—
(미국)	2.2	1.5	2.4	2.6	2.4	2.8	2.5
(유로)	-0.8	-0.3	0.9	1.5	1.5	1.6	1.8
(일본)	1.7	1.6	-0.1	0.6	0.6	1.0	1.0
신흥국	5.2	5.0	4.6	4.0	—	4.5	—
(중국)	7.7	7.7	7.3	6.8	6.8	6.3	6.5
(인도)	5.0	6.9	7.3	7.3	7.2	7.5	7.3
(브라질)	1.8	2.7	0.1	-3.0	-3.1	-1.0	-1.2

자료 : IMF(2015.10), OECD(2015.11)

2016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3%대 초반 전망

2016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대외여건 개선 및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금년(전망치 2.7%)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년의 저조한 성장세를 감안하면 경제활동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16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

전망기관	2015	2016	전망기관	2015	2016
한국은행 (15.10월)	2.7	3.2	IMF (15.10월)	2.7	3.2
해외투자은행 (15.10월)	2.5	2.9	OECD (15.11월)	2.7	3.1

주 : 1) 해외투자은행은 은행별 전망치 평균, BNP Paribas(2015년 2.2, 2016년 2.4), Barclays Capital (2.6, 3.0), BOA-ML (2.7, 3.1), Deutsche Bank (2.4, 2.9), Goldman Sachs(2.6, 3.3), Morgan Stanley(3.6, 4.1), Nomura(2.4, 2.5), Citi(2.5, 2.4)

자료 : 각 기관, 국제금융센터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부담 및 고령화에 따른 소비성향 저하 등의 제약요건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지속 및 저유가에 따른 구매력 상승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수출은 세계 경제 성장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성장세 둔화 등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지출부문별 경제성장 전망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GDP	2.0	3.0	3.3	2.7	3.2
민간소비	1.7	2.0	1.8	1.8	2.2
설비투자	-1.9	-1.5	5.8	5.7	4.8
건설투자	-2.2	6.7	1.0	4.6	3.3
상품수출	3.8	4.5	2.3	0.2	2.3
상품수입	1.5	1.2	1.2	0.9	1.8

자료 : 한국은행

2016년 동남권 2.7% 성장 전망

동남권 경제성장률은 금년 1.5%(추정치)에서 2016년 2.7%로 상승할 전망이다. 다만 중국경제와의 상대적으로 높은 연관성을 고려할 때 전국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력업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최대 주력업종인 조선업은 과거 2~3년치 수주량을 고려할 때 2016년중에는 생산이 증가세로 반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부산의 금융·보험업 성장세 확대, 저유가로 인한 소비확대 효과 등으로 금년보다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건설업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성장 및 정부 투자확대 등에 힘입어 금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금년도 건축 착공면적은 전년동기대비(1~8월중) 11.5%의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경우 금년 추정치(4.7%)보다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면서 내년에는 4.5%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금융기관 이전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금융 부문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금년중 높은 생산증가세를 보인 조선 및 자동차 부문의 성장세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5년중(1~9월 기준) 부산 지역 조선업은 한진중공업 정상화, 자동차 산업은 르노삼성 닛산로그 생산 확대 등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104.6%, 20%의 생산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울산은 금년(0.3%)보다 성장세가 다소 확대(2.0%)될 전망이다. 자동차산업 상승세 지속, 석유정제업 및 조선업 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률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의 자급률 제고 등에 따른 석유화학업 부진은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남의 경우 금년(0.0%)보다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기계, 금속 등의 회복지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경제 부진의 주된 부분으로 작용한 조선업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동남권 경제성장률 전망

(전년대비, %)

구 분	전 국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2015 ^{p)}	2.7	1.5	4.7	0.3	0.0
2016 ^{e)}	3.2	2.7	4.5	2.0	1.9

주 : 동남권 지역은 BNK금융경영연구소 추정치(2015년) 및 전망치(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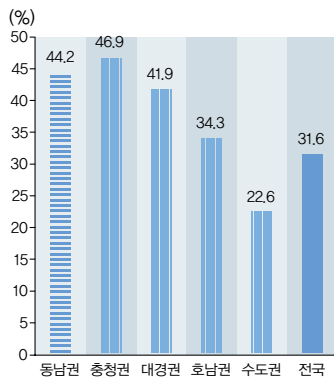
전국은 IMF 추정치(2015년) 및 전망치(2016년)

동남권 경제구조

■ 동남권 경제는 제조업 비중이 높아 대외여건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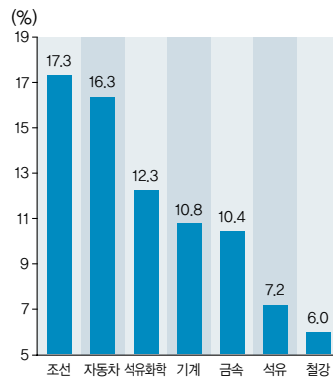
- 제조업 비중은 44.2%로 충청권을 제외하면 최대이며 전국 제조업 평균(31.6%)을 크게 상회(2013년 명목 총부가가치 기준)
- 수출의존도(2013년 기준)는 72.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광역경제권별 제조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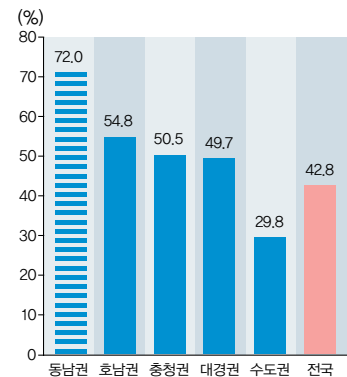
주 : 2013년 총부가가치(명목가격) 기준
자료 : 통계청

동남권 주력업종별 비중



주 : 2013년 부가가치 기준
자료 : 통계청(광업·제조업 조사)

광역경제권별 수출의존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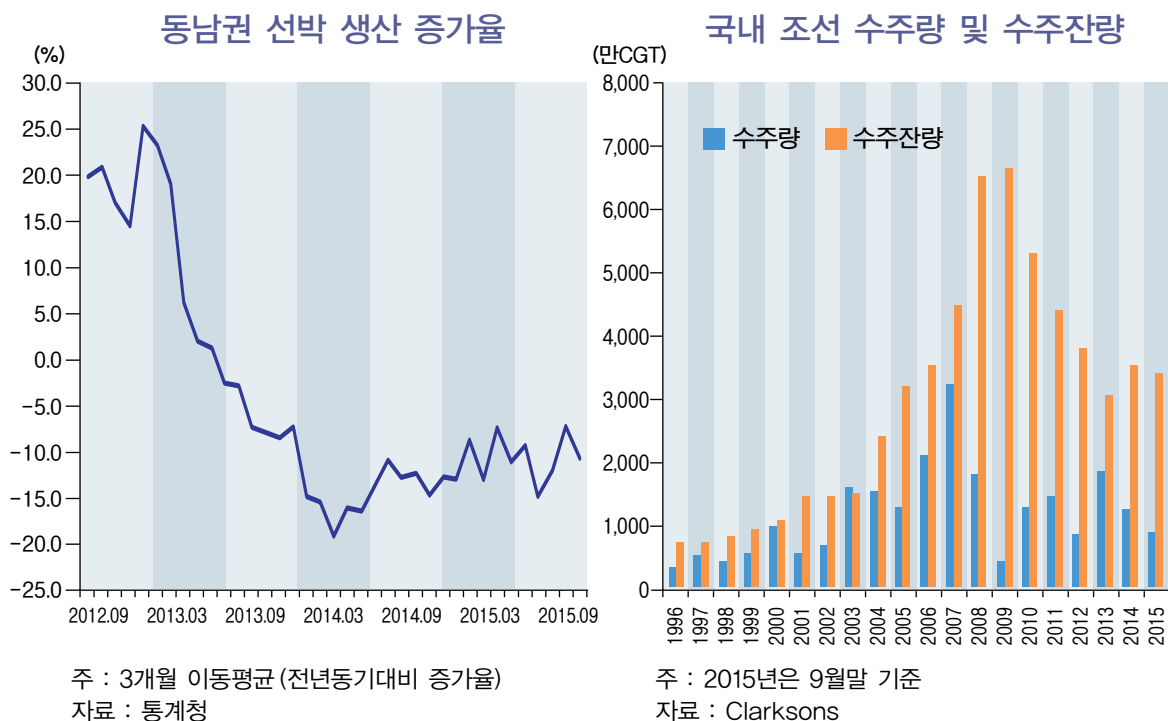
주 : 수출의존도 = 수출액 / 명목GRDP
자료 :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동남권 주력산업 자동차 외에는 대부분 부진

조선

전세계 조선업은 물동량 대비 선박량 초과공급 상태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Danish Ship Finance(2015.5월)의 발표에 따르면 선종별 과잉공급(2014년 기준)은 석유제품운반선 27%, 원유운반선 25%, 컨테이너선 23% 등 약 25% 수준이며 이와 같은 상황이 적어도 2017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있다. 2015년 1~9월중 전세계 선박(해양플랜트 포함) 발주량(2,433만CGT)이 전년동기대비 32.8% 감소한 것도 이와같은 선박수급 전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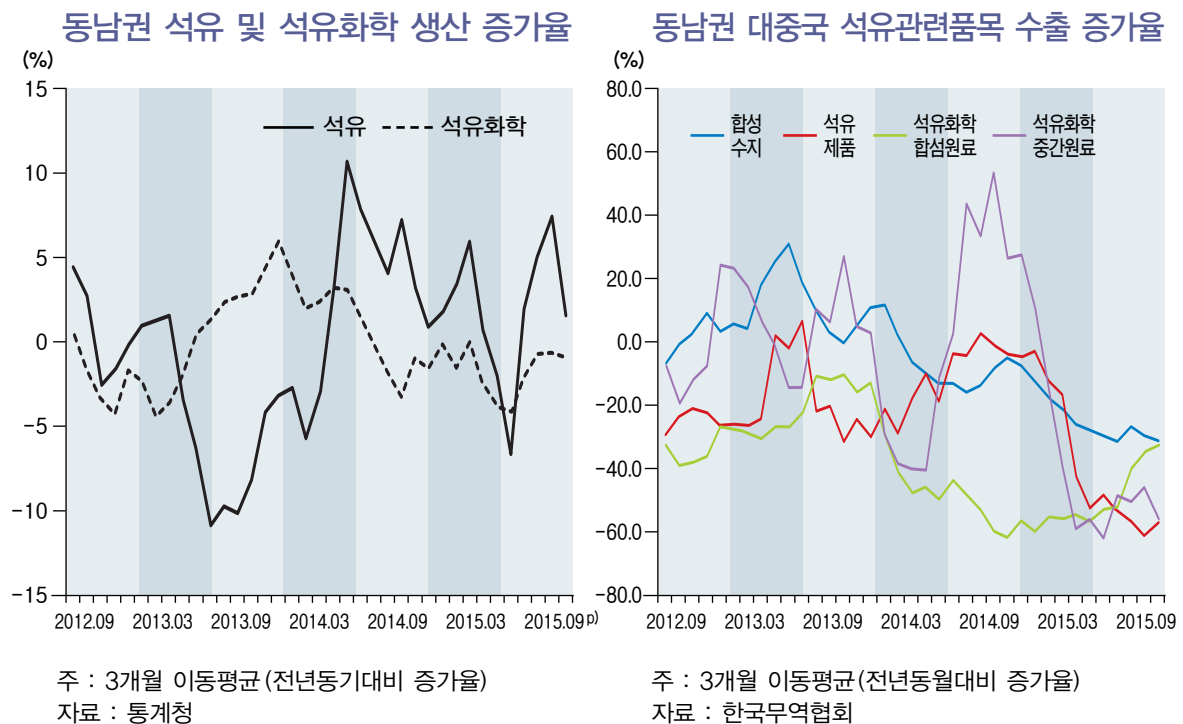
국내 조선업 수주도 선복량 과잉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1~9월중 수주량(877만CGT)은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하였으며 수주잔량(3,439만CGT, 2015년 9월말 기준)은 약 2.3년치 물량만 남아 최대물량을 보유했던 2009년(4년치 물량)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형 컨테이너선도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운임급락 등으로 수요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16년 생산은 2013~14년중 수주물량을 감안할 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 및 석유화학

석유부문은 저유가 지속에 따른 수요확대로 소폭 성장할 전망이다. 2016년중 국제 원유가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IA(미국에너지관리청, 2015.11월)에서는 미국 등 비OPEC 중심의 생산감소에 기인하여 내년중 원유가를 금년보다 다소 높은 56달러(브렌트유 기준)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World Bank는 중국 등 신흥 시장국 경기둔화 및 재고증가 등으로 원유가격이 금년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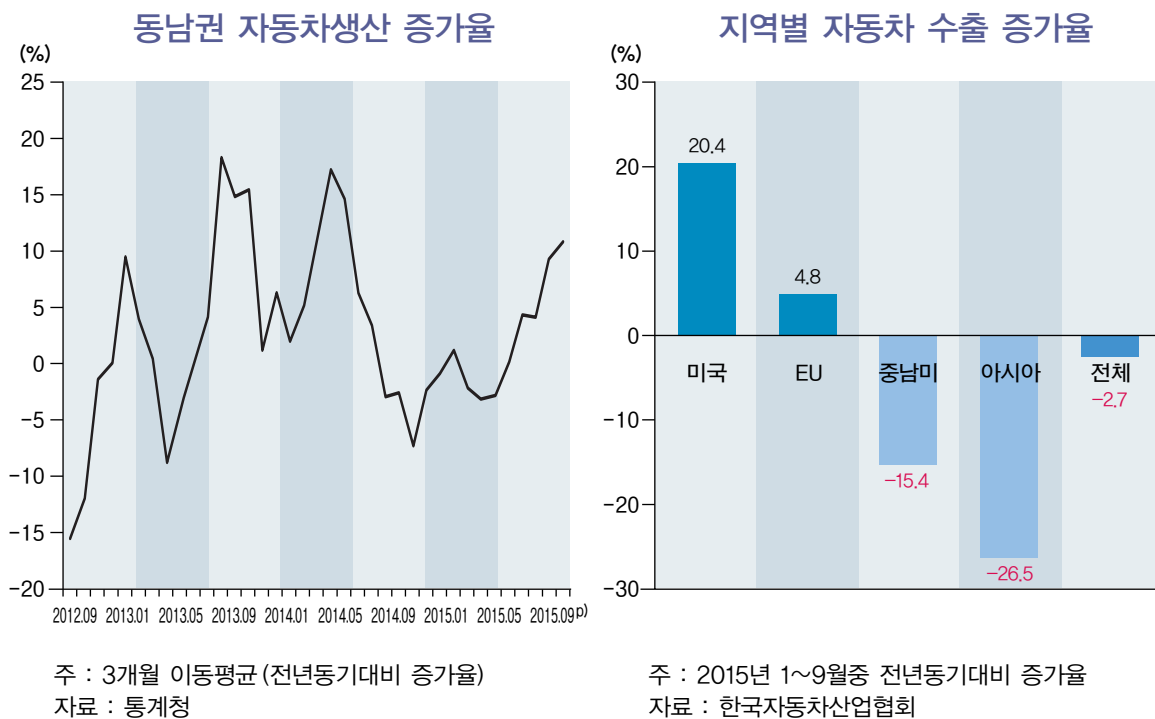
석유화학 부문은 경기여건 및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자급률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주택경기 회복 지연으로 동남권의 대중국 5대 수출품목(MTI = 3단위 기준)인 합성수지 수요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자동차

국내 자동차산업은 신흥시장국 경기둔화 및 경쟁국 통화약세 등에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 주요시장인 미국(수출비중 36.8%, 2015.9월기준) 및 EU(수출비중 15.9%)로의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2015.11월) 발표에 따르면 금년 1~9월중 전년동기대비 아시아(-26.5%) 및 중남미(-15.4%) 수출은 감소했으나 미국(20.4%) 및 EU(4.8%)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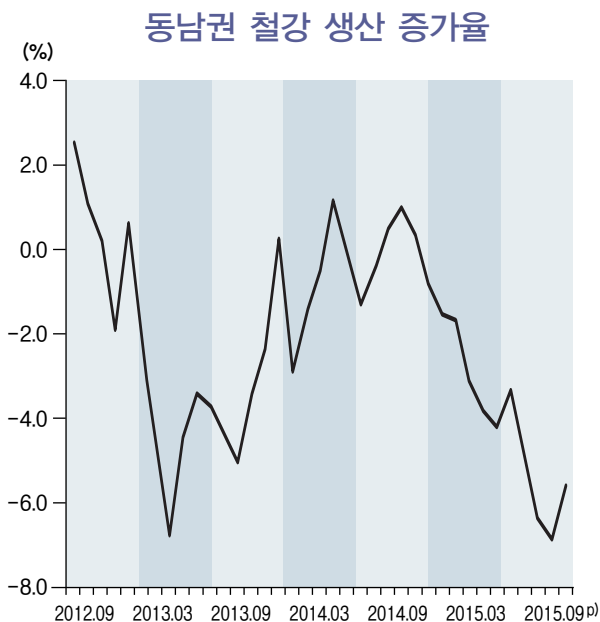
2016년에도 경쟁국 통화약세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성장세 확대, 유로 등 선진국 경기회복, 중국 자동차 소비세 인하 효과 및 내수회복 등에 힘입어 신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S&P(2015.10월)에서는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2016년 5% 늘어나 금년(2.6%)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철강

세계 철강업은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철강수요도 전년대비 1.7% 감소할 것으로 예상(세계철강협회, 2015.10월)되고 있어 좀처럼 부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철강수요가 건설업 부진에 따라 2015년중 큰 폭으로 감소(-3.5%)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loomberg(2015.11월)에 따르면 철강업 부진으로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철광석 가격이 내년에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업황 부진으로 2014년 76.2%에 달했던 중국의 철강 생산가동률도 2015년(1~9월 기준) 71.1%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동남권 철강업의 경우 중국의 내수 부진에 따른 저가물량 공급확대 등으로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철강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인프라 투자 확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되나 단기 간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철강협회(2015.10월)에서도 2016년 세계 철강수요가 금년보다 소폭 증가(0.7%)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주 : 3개월 이동평균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세계 철강수요 전망 (%)

구 분	세계	중국	신흥 ¹⁾ 시장국	아시아 ²⁾ 오세아니아
2013년	3.8	6.1	5.2	4.9
2014년	0.7	-3.3	2.6	-0.9
2015년	-1.7	-3.5	1.7	-2.1
2016년	0.7	-2.0	3.8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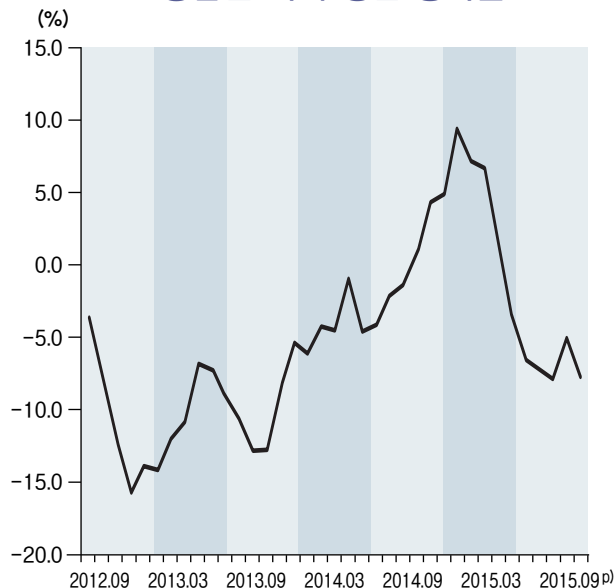
주 : 1) 2) 중국 제외
자료 : 세계철강협회 (WSA, 2015.10월)

기 계

기계업은 조선 등 전방산업 부진, 엔저 지속 및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 경기둔화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S&P(2015.8.3) 발표에서도 금년 글로벌 설비투자가 에너지와 원자재 부문을 중심으로 1%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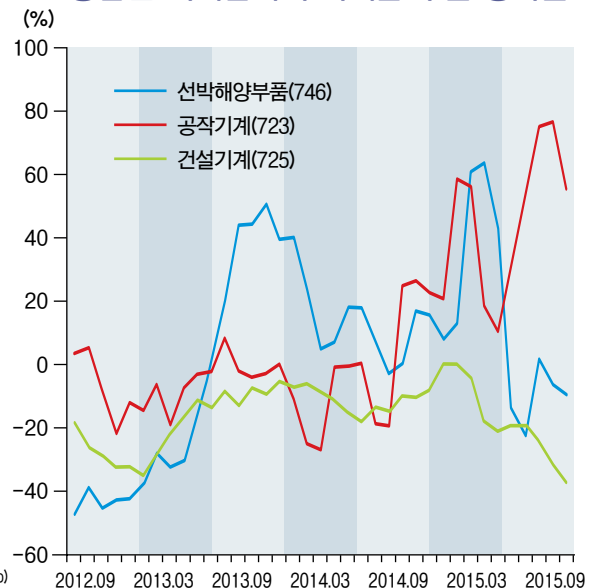
2016년에는 건설기계의 경우 전세계 수요의 26%를 차지(Bloomberg, 11.20)하는 중국 수요가 위축되면서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엔진부품 및 공작기계도 자동차산업을 제외한 전방산업 경기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중국 과잉설비 및 엔저 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동남권 기계 생산 증가율



주 : 3개월 이동평균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동남권 기계업체 주력제품 수출 증가율



주 : 1) 3개월 이동평균, 전년동기대비
2) MTI 3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BNK 금융경영연구소

최신 경제정보 모바일 서비스

카카오톡에서 BNK금융경영연구소를 친구로 등록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최신 경제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등록방법

카카오톡 친구 찾기

- ➔ BNK금융경영연구소 검색
- ➔ 친구추가 클릭
- ➔ 플러스친구 등록 확인

BNK

BNK 부산은행 | BNK 경남은행 | BNK 투자증권 | BNK 캐피탈 | BNK 저축은행 | BNK 자산운용 | BNK 신용정보 | BNK 시스템 **BNK 금융그룹**

BNK BNK금융지주

발행인 : 성세환

편집인 : 조성제

발행처 :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락처 : BNK금융경영연구소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이메일 : research@bnkfg.com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